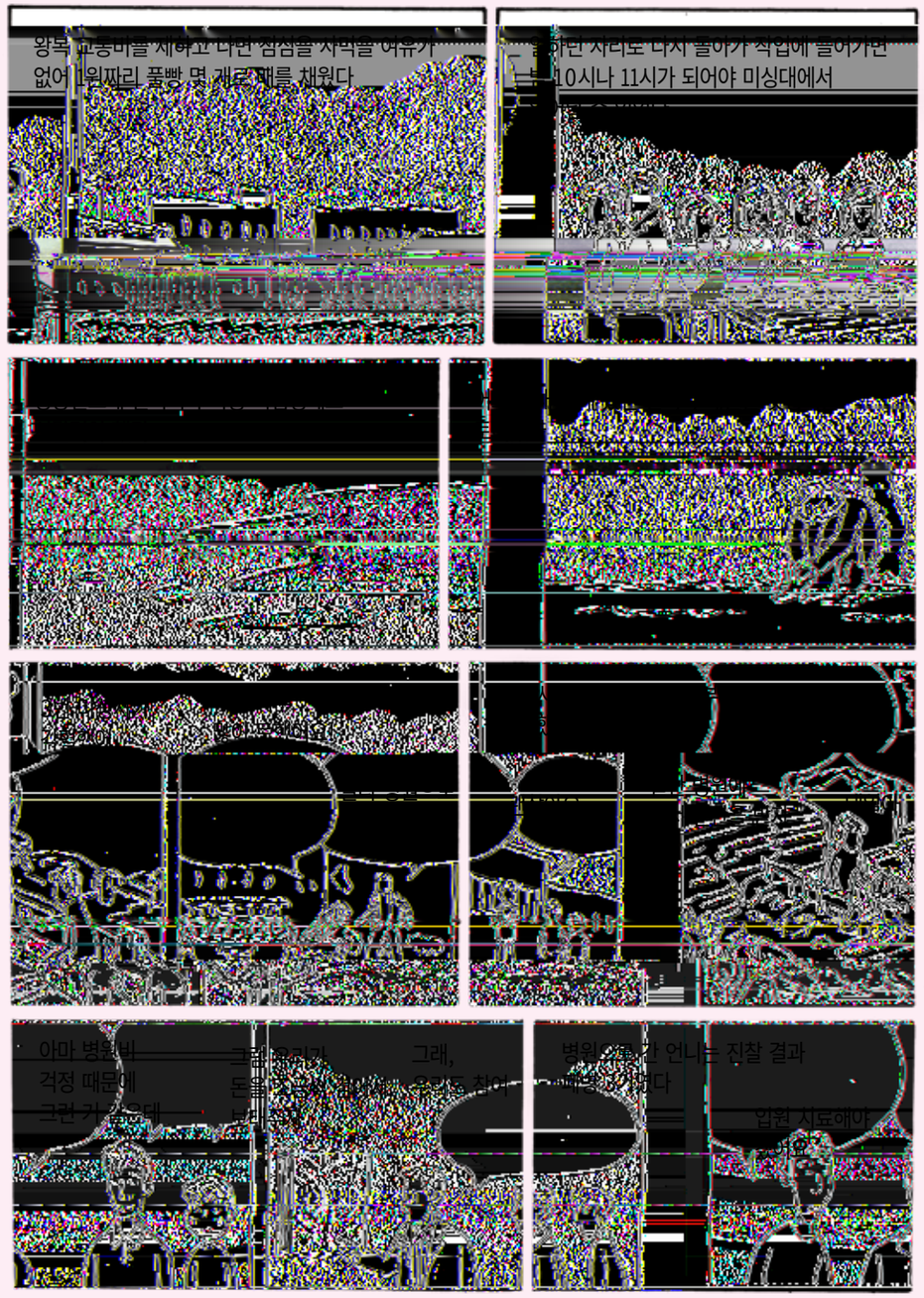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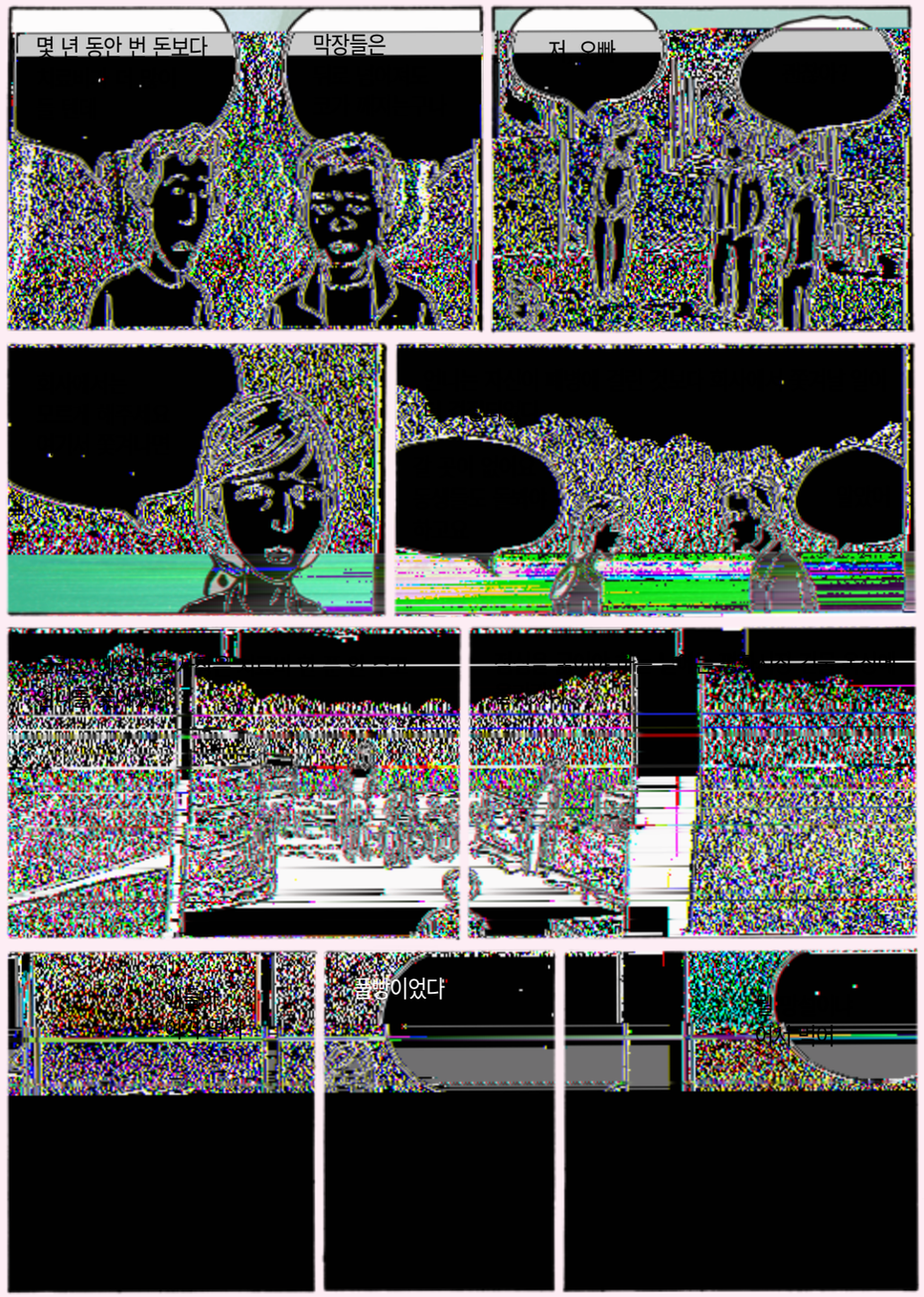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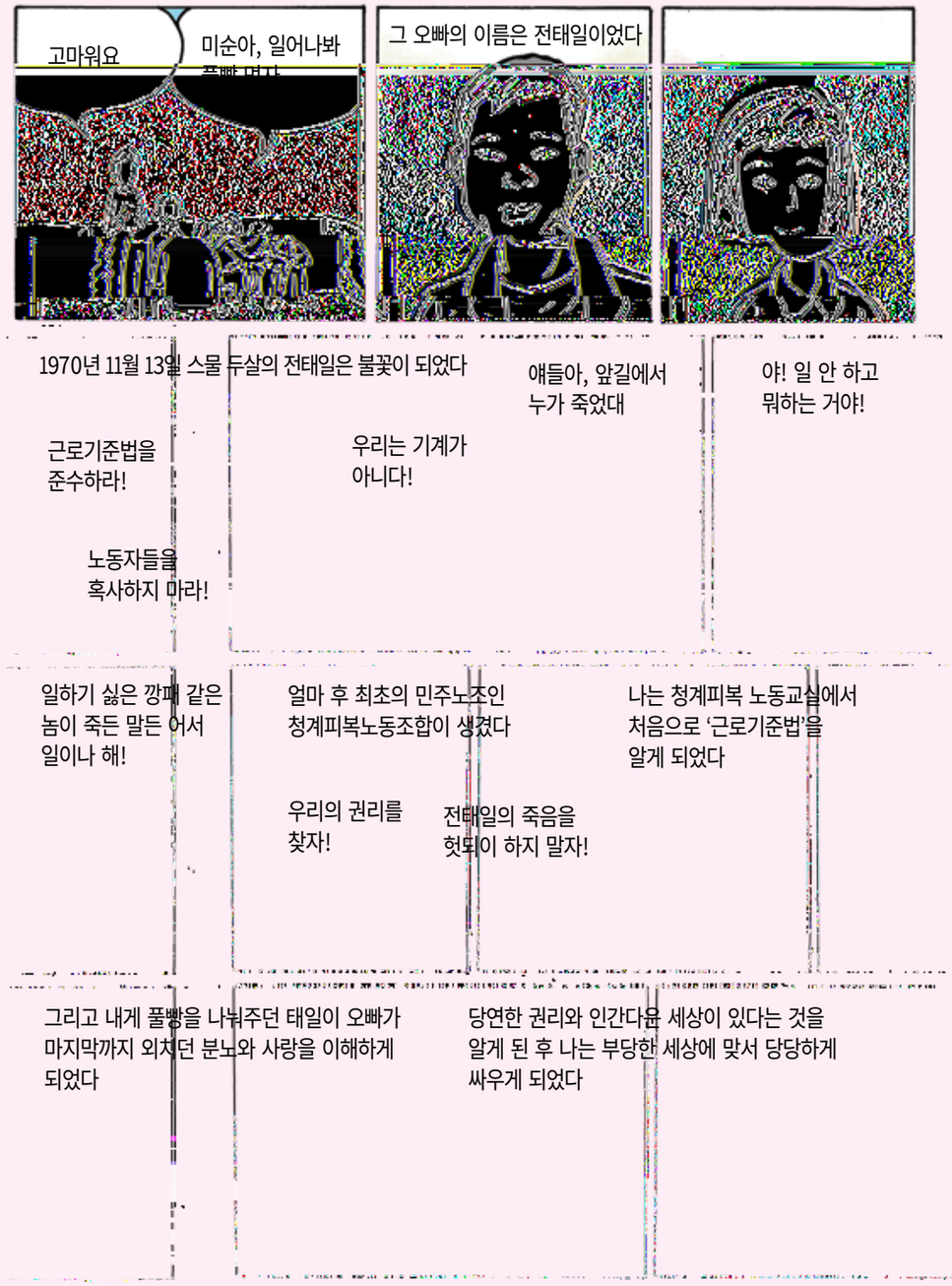
전태일과 7번 시다

탁영호 역사만화가 / wellnet1212@hanmail.net




몇 년 동안 번 돈보다
막장들은
풀빵이었다


고마워요
미순아, 일어나봐
그 오빠의 이름은 전태일이었다
1970년 11월 13일 스물 두살의 전태일은 불꽃이 되었다
얘들아, 앞길에서 누가 죽었대
야! 일 안 하고 뭐하는 거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마라!
일하기 싶은 깡패 같은 놈이 죽든 말든 어서 일이나 해!
얼마 후 최초의 민주노조인 청계피복노동조합이 생겼다
나는 청계피복 노동교실에서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권리를 찾자!
전태일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그리고 내게 풀빵을 나눠주던 태일이 오빠가 마지막까지 외치던 분노와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당연한 권리와 인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부당한 세상에 맞서 당당하게 싸우게 되었다